

No.20150722-001

제목: 시체가 쌓여있는 밤

저자: 마에카와 유타카

페이지수: 307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5월 20일



### <내용소개>

#### 희대의 참극 '기우라 사건'을 1년에 걸쳐 조사하고, 수수께끼의 범인의 실상을 파헤쳐 쓴 페이크 다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란 소설 속의 인물이나 단체, 소설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치 허구의 상황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장르를 말한다.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다큐멘터리(Documentary)'에 '가짜의'라는 이질적인 뜻을 가진 단어 '페이크(fake)'를 붙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다큐멘터리는 '진실'이라는 인식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사건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1985년 7월, 카고시마의 한 동굴에서 한 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집단 자살을 했다. 중심이 된 남자의 이름은 키우라 켄조로 당시 48살이었다. 그는 자살 직전 1년간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한 의혹이 있고, 그 사건은 '키우라사건'이라고 불린다. 당시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큰아버지가 그 사건에 관련 되어 자살 한 것을 계기로 하여, 30년이 지난 후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그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한다. 키우라는 1985년 5월 살인 용의자로 지명수배되어, 7명의 여자를 데리고 도주했다. 도주할 당시 키우라를 포함해 8명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었지만, 발견 된 사체는 7구에 불과했다. 당시 15세로 가장 어렸던 한 소녀가 집단 자살 직전에 풀려났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 소녀는 키우라가 하마마츠에서 여관을 하고 있을 때부터 함께 일을 했던 소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키우라가 그 소녀에게 직접 경찰에 갈 것을 지시하고, 소녀는 지시대로 행동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그 후 소녀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30년이 지나 저널리스트는 그녀를 찾는데 성공, 그녀에게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된다.

키우라는 국립대학 출신으로 준교수가 되고, 그 후 폭력단 두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아내를 교살해 체포 당한다. 그 후 걸으로는 여관을 경영하고, 사실은 매춘을 하는 사업을 하마마츠에서 시작, 곧 도쿄로 진출하게 된다. 도쿄에서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결국 경찰에게 발각 당해 자신의 밑에서 일하고 자신을 따르던 매춘 여성들을 데리고 동굴 안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은 미스터리 장르에 있어 일본의 차세대 작가로 불리는 마에카와 유타카의 새 작품이다.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감과 몰입감이 높아 리얼한 느낌이 나는 작품으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읽으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게 될 것이다. 공포 장르의 작품은 아니지만 더운 여름에 읽으면서 더위를 잊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 1장: 점거

제 2장: 말소

제 3장: 감금

제 4장: 밀고

제 5장: 임종

에필로그

**<저자소개>**

마에카와 유타카

히토츠바시 법학부를 졸업 하고, 도쿄대학 대학원(비교 문학 비교문화 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호세이 대학 국제문학부의 교수이다. 전공은 비교문학, 미국 문학이다. 연구자로서의 논문번역서가 다수 있다. 2012 년 '크리피'로 제 15 회 일본 미스터리 문학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No.2015072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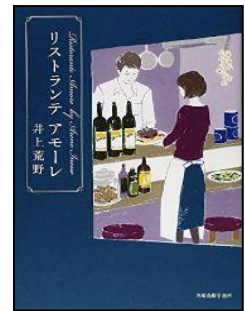
제목: 리스토란테 아모레

저자: 이노우에 아레노

페이지수: 240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4월 01일



### <내용소개>

#### 남매가 경영하고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그린 소설

한국의 대중문화의 중심에는 예능이 자리 하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요리하는 남자들이다. 요즘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서는 '셰프' 캐릭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올해는 '셰프 캐릭터'들이 드라마에서 넘쳐 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 동안 요리사, 혹은 셰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셰프가 등장하는 드라마는 성공을 거두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능의 효과인지 줄줄이 셰프 드라마들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 인기를 끌던 '먹방'에 이어 '쿡방(요리를 만드는 방송의 줄임말)'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스타 셰프들이 바쁘게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셰프 캐릭터를 내세울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은 예전부터 음식, 식당을 소재로 한 매체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미식가가 나오는 드라마나 식당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것을 드라마화한 것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도 식당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남매가 경영하는 작은 레스토랑 '아모레'. 남동생인 코지가 셰프이고, 누나인 시노부가 접객을 담당한다. 아모레는 꽃미남 셰프를 목적으로 찾는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음식도 맛있기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난다. 한가지 문제는 꽃미남 셰프인 코지가 항상 식당이 끝난 후 여성 손님을 데리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시노부는 셰프의 스승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연애에 능숙한 남동생과 능숙하지 않은 누나. 그런 남매와 단골 손님들의 연애이야기, 인생의 이야기가 연작으로 이어져 있다. 한 편의 이야기 시작에 [오늘의 메뉴]가 써져 있어 그날 셰프가 만드는 요리명이 써있다. 요리명의 마지막엔 항상 데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 혹은 남자가 써있다. 대부분의 연애는 실패로 끝나지만, 그런 사랑의 아픔을 작가는 따뜻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어 읽는 사람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소설이다. 읽다가 보면 한 손에는 와인 혹은 칵테일을 들고, 어려운 요리 이름이지만 이탈리아 요리를 함께 곁들이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 했을 때 문득 코지가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러 가고 싶은 생각에 이끌려 아모레를 찾아 가게 될 지도 모른다.

**<저자소개>**

이노우에 아레노

도쿄에서 태어나, 세이케이 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1989년 '나의 누레예프'로 제 1회 페미나상, 2004년 '준이치'로 제 11회 시마세 연애 문학상, 2008년 '채굴장으로'로 제 139회 나오키상을 수상했다.

No.20150722-003

제목: 머리회전이 빨라지는 속독x기억력 트레이닝

저자: 카와무라 아키히로, 카와무라 신야

페이지수: 23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2월 26일



### <내용소개>

## 일, 공부 등에서 '읽기'가 필요할 때, 스피드가 빨라지는 속독 스킬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계발서

급속도로 발달, 변천하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속독법이라는 것이 개발 되었다. 속독이란 책의 내용을 이해하며 최대한 빨리 읽는 것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보통 1분에 글자 2,100자 이상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도로 해석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에서 속독법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속독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읽는 것만이 아니라 독해력을 같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해가 빨라지고 뇌는 이해한 내용을 저장하기 때문에 속독법을 익히면 기억력 또한 향상 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속독법은 같은 시간에 책을 보더라도 많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 할 수 있어서 제대로 배워두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저자는 속독은 초능력이 아니라고 한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트레이닝을 쌓으면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금방 익숙해지는 능력인 것이다. 때론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원래 공부를 못했으니까' 라고 유전자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인 것이다. 실은 스스로의 유전자에 숨겨져 있던 설계도를 활용하지 않아 능력이 활성화 되지 않을 뿐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꾸준히 단련 하는 것으로 학습, 공부의 성과가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속독법에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몸의 기능을 단련시키는 트레이닝 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 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문장을 빨리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트레이닝에 도전함으로써 원하던 스킬이 익숙해 지고 스스로가 가고 싶었던 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미국에서도 증명을 끝낸 '카와무라식 속독 트레이닝'의 효과

서장: 당신의 잠재능력을 '속독'으로 깨우자!

(머리의 회전'은 누구나 빨라진다 / 뇌는 빠른 정보에 순응 할 수 있다 등)

제 1장: 속독을 제대로 익혀두면 이렇게 편리

(속독은 어떤 것? / 속독을 배워서 득이 되는 것 / 속독으로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바뀐다 등)

제 2장: 속독x기억력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사전체크 / 당신은 우뇌파? 아니면 좌뇌파? / 시야와 시폭의 확대가 중요 등)

제 3장: 트레이닝 개시! 안근과 우뇌를 단련하자

(안근력을 올리는 것으로 '보는' 힘도 늘어난다 / 우뇌의 활성화로 빼놓을 수 없다 / 시폭 확대 트레이닝 / 안근 랜덤 운동 등)

제 4장: 차원이 다른 스피드로 인식하는 힘을 기르자

(일단 문장을 읽는다 / 읽는 것이 느려지는 원인을 생각해 보자 / 몸의 긴장을 진정시키고 페이지를 넘겨라 / 무리하지 말고 트레이닝을 계속 한다 등)

제 5장: 궁극의 속독술 '블록읽기'를 익힌다

(문장을 문자 덩어리로 읽는 속독술='블록읽기' / 가로 한 줄 10문자로 읽는다 / 의식을 부분분할 한다 / 블록이 한 페이지로 넓어지지 않을 때는 등)

제 6장: '멀티 뇌'를 만드는 기억술 트레이닝

('기억술'은 현대인에게 필수인 스킬 / 반복하는 것으로 기억력은 단련된다 / 기억 유지력에 대해서 알아두자 / 좌뇌기억 트레이닝과 우뇌 기억 트레이닝 등)

에필로그: 앞으로의 능력개발의 가능성

**<저자소개>**

카와무라 아키히로

속독법, 다분야 학습법 등의 개발 창시자이며 빠른 뇌 이론의 제창자이다.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강연을 하고 있다. 40년 이상에 걸쳐 연구개발을 해서 베스트셀러 '머리가 좋아지는 속독술' 등 관련서적은 100권 이상이 된다. 닌텐도 DS, 소니의 게임 소프트도 많이 있다. 해외에서도 보급 및 제휴활동도 하고 있고, eyeQ(영어판 속독)은 현재 미국내 웨어 넘버원이 되었다. 빠른 뇌, 속뇌 속독, 속뇌 속칭의 상표와 일본, 미국, 중국에서 속독술 등의 특허를 다수 취득했다. 일본 벤클럽 회원이며 속뇌연구회 회장, 신 일본 속독연구회 회장, 교육학박사, 명예정보 공학 박사이다.

카와무라 신야

초등학생 때부터 카와무라식 조인트 속독법의 훈련을 받았다. 오랜 기간 속독강사로 활동하고 본부교실 운영에서 관동지역 컬쳐센터에서의 강의, 단체 세미나 등을 총괄했다. 그 후, IT 벤처기업에 근무한 후 보다 많은 사람의 능력향상과 유지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해 속독

방법을 응용한 영어속독,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종사했다. 신 일본 속독연구회, 속뇌 연구회, 해외사업 운영관리를 하는 주식회사 인피니티 대표이사 겸 사장이다.

No.20150722-004

제목: '즉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왜 성공할까?

저자: 코세키 나오키

페이지수: 205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6월 26일



### <내용소개>

**고민이 없다면 일은 놀랄 정도로 빨라진다!**

**의사결정을 하는 네 가지 도구를 익힘으로써 일도 사생활도 바로 해결 된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한다.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저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등 이 세상의 일을 다 할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한다. 매 번 생각하고 내리는 판단을 항상 '제대로 의식' 해서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들은 무수한 판단을 거듭하며 살아간다. 매 번의 판단의 영향은 작은 것이라도 그 매 번의 판단이 거듭되면 적절한 판단을 했을 때와 부적절한 판단을 했을 때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생겨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자신에게로 그 영향이 돌아온다.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심플한 작업이고, 이 작업이 되면 고민은 차례차례 해결 되고 그 이상으로 일과 사생활도 충실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 아니라 '스피드'라고 한다. 물론 정확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전에는 '스피드' 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해 왔다. 사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패 하지 않는 것=성장'으로, 리스크를 피하려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하나의 실패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로 바뀌어 '실패 하지 않는 것=성장'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성장이 되었고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졌다. 따라서 요즘 시대에서는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최대화 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좋은 판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얻으면서도 스피디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류 비즈니스맨처럼 판단스피드를 올리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만을 부담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 대답을 의사결정 툴을 활용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결정 툴이라는 심플한 '사고방식'의 도구를 사용해 판단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툴이란 '트레이드 오프', '나무 (Tree)화', '범위 축소', '게임이론' 이 네 가지이다.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판단력은 향상되고 매일 하는 일이 극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한다. 실패



하지 않기 위한 행동에는 가치가 없고, 실패를 해서라도 무언가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행동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로 결정을 내려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면 그 만큼 생산성도 오르고, 사생활의 시간도 충실해 질 수 있다. '의사결정도구'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한 권이 될 것이다.

#### <목차소개>

제 1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 실패한다 / 판단 스피드의 빠름과 이익의 크기는 일치한다 / 대비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인기 만화 ‘고독한 미식가’ 등)

제 2장: ‘무엇을 남길까’ 보다 ‘무엇을 버릴까’가 중요

(‘버리는 용기’를 가져 성공한 저가 항공사 / 이자택일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인다 / 고민된다면 ‘활용 이미지’가 강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철칙 등)

제 3장: 트리화로 최단을 확인한다

(선택지가 많아도 ‘트리화’를 사용하면 헤매지 않는다 / 해외여행의 ‘첫 끼’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비즈니스로써 ‘미래’에 투자해라 / 문제해결은 세 가지의 순서로 잘 된다 등)

제 4장: 압축을 해서 명확화 하자

(경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자기 나름의 승부처를 압축해라 / 일의 전문성을 빨리 압축할수록 성과는 나온다 / 고민에 시간이 걸릴수록 복잡해 진다 등)

제 5장: 경쟁 상대와의 ‘흥정’에서 이기자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는 ‘게임 이론’의 구조 / 성공하는 사람은 ‘최고의 이익’ 보다 ‘일정의 이익’을 중요시 한다 등)

제 6장: ‘즉시 판단’이 익숙해 지는 일상 습관

(매일의 점심메뉴를 한번에 정한다 / ‘일상을 인수분해 하는’ 버릇을 길러라 / 전혀 모르는 장소를 혼자서 여행해라 / 정말로 가치가 있는 정보에 ‘금전 투자’를 해라 등)

#### <저자소개>

코세키 나오키

1970 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현재 셀러리맨 작가이다. 츠쿠바 대학 대학원 비즈니스과학 연구과 박사과정 후기에 중퇴했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비즈니스 스쿨)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석사 과정, 국제 경영학 전공을 수료해 경영학 석사이다. 현재는 도쿄 내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작가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No.20150722-005

제목: 미술의 유혹

저자: 미야시타 키쿠로

페이지수: 189

장르: 교양/미술

출간일: 2015년 06월 17일



### <내용소개>

####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관계가 있고, 역사의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술과의 첫 만남을 위한 교양 입문서

미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 물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미술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만약 없어도 상관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술이란 작가의 생활경험에서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과 심상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형태, 면, 선, 색, 기호 등 갖가지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종합하여 자기의 심정을 전달하고 또 미적 쾌감을 주어야 한다.

회화라는 매체의 기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다. 인간이 그리고자 하는 욕망에 힘입어 굵직한 세계사적 사건들이 차곡차곡 회화에 담겨왔기 때문에, 몇 장 영화를 주의 깊게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격동의 세계사를 짐작 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미술관에 데려가거나, 학교교육에서 미술사라는 과목이 있어 누구든 미술관과 미술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술관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흥미가 없는 사람의 극단적인 차가 있다. 미술은 단순한 우아한 취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와도 깊게 관련되고, 생로병사를 그리고, 사람의 욕망과 이상을 반영한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미술은 역사의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미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에 따라 소개를 하고 있다. 일상 생활의 모습을 그린 작품에서부터 한 시대를 반영한 작품까지 25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각 이야기에 맞는 그림을 첨가하며 해설, 또 그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모든 그림은 컬러로 되어 있어 마치 미술관에 있는 기분이 들 것이다. 또 저자는 여기 저기서 개최되고 있는 큰 전시회나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그림들을 둘러 볼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즐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고 있다.

처음부터 읽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흥미가 있는 파트부터 읽어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미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미술이나 미술사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전시회에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에게 끌려갔던 미술관도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더 즐거운 외출이 되는데 도움을 줄 한 권이다.

<본문이미지>

스페인왕페리베三世의若い日の肖像にも、左右に擬人像が配されている。王の右手には、剣を持つ美徳の擬人像が歩み寄り、その背後には頭に砂時計を載せた時間の擬人像の夫人が、愛欲の象徴である目隠しをしたケイトを背後に押しきろうとしている。日本では、戦国時代から桃山時代にかけて、遺品は少ないながらも子供の肖像画が登場した。しかし、それは子供が亡くなったときに近親者が描かせたものばかりである。



ユストゥス・ティール  
《フェリベ三世の教育の高意》1590年頃  
マドリッド、プラド美術館

40

第3話 子供の肖像



(上)《細川菊丸像》1587年 京都、嵯峨松林  
(下)《前田菊姫像》1584年 滋賀、西教寺

十一歳で他府した「細川菊丸像」や、豊臣秀吉の嫡男でわずか三歳で没した「豊臣乗丸像」、前田家の娘で秀吉の養女となり、七歳で亡くなった「前田菊姫像」など、桃山時代の童子肖像画のほとんどは大人と同じように、袷を着け、上巻に座つた姿で表現されている。子供でありながら一人前の人間として表現され、強い追慕の念に彩られている。

41



J.M.W.ターナー  
《雨、蒸気、大橋》1844年  
大英博物館複製権管理



数川男 ぶんはぶらさないだ  
1947年

88

第11話 だまし絵



ダリ《海辺に出現した顔と乗物録の幻影》  
1938年 ハートフォード、ワズワース・アシナム

たアルチンボルト。事物を寄せ集めて別のイメージを作るこうした手法は「アルチンボルト効果」とよばれ、明の版画を経由して江戸期の浮世絵師の歌川国芳にも影響を与えた。また、脚の風景が九十度回転すると人の顔になる風景画や、風景の中に人や犬の顔が浮かび上がるダリの幻想的な作品も、ダブル・イメージの傑作である。  
だまし絵は、珍しい作品によって驚かさずたいという欲望に駆られるものであり、美術路の原点である民衆的な見世物に通じるものであった。知識も経験も必要とせず、美術鑑賞の楽しみを十分に味わせてくれるのだ。  
近年、全国各地にできた「トリックアート

89

<목차소개>

Prologue: 미술관 안의 남과 여

제 1화: 죽은 아이를 그리다 / 제 2화: 공양화 가격 / 제 3화: 아이의 초상

제 4화: 요절의 천재 / 제 5화: 인생의 계단 / 제 6화: 청빈을 동경하다

제 7화: 웃음을 그리다 / 제 8화: 식의 정경 / 제 9화: 잠 / 제 10화: 거대한 스케일

제 11화: 속임수 그림 / 제 12화: 가장(假裝) / 제 13화: 카마가사키의 표현의욕

제 14화: 문신 / 제 15화: 승부사의 영광 / 제 16화: 콜렉터 심리  
제 17화: 자기 현시욕구 / 제 18화: 나르시시즘 / 제 19화: 나치의 전쟁화  
제 20화: 관전(官展)과 근대의 아시아 미술 / 제 21화: 일본의 야경화  
제 22화: 절충주의의 영광과 조락 / 제 23화: 미시마 유키오  
제 24화: 린파와 프리미티비즘 / 제 25화: 하얀 나비  
Epilogue: 미술의 유혹

**<저자소개>**

미야시타 키쿠로

1963년 아이치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는 미술 역사가 겸 고베대학 대학원 인문학 연구과 교수이다. '컬러버전 성서와 비전'(나고야 대학 출판회)로 산토리 학예상 등을 수상했다.

No.20150722-006

제목: 병행 커리어를 시작하자!

저자: 이시야마 노부타카

페이지수: 240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7월 03일



### <내용소개>

## 두 번째 명함을 가지고 원래 직업과 사회활동 양쪽의 병행으로 자신을 성장 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병행 직업이란 본래의 직업과, 그 직업 이외의 사회활동 등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다. 원래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사명을 위한 일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 평생 한 직종에 몸담으며 그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던 지금까지의 풍토와는 달리 제 2, 3의 직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병행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병행 직업은 평소에는 경험 할 수 없는 사회활동에서의 배운 것을 원래 갖고 있는 직업에서 활용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 또, 기업과 NPO등 여러 단체도 병행 직업의 구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족한 조직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병행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도 서로에게 좋은 제도인 것이다.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활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업과 동시에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최근에는 병행 직업을 통해서 본업과 사회활동 양쪽에서 배운 것을 각각 다른 활동에서 살려 스스로 성장하고, 본 직업에서도 더욱 빛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팀을 이뤄 주체적으로 과제해결을 행하고, 기존의 조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립시키는 것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노베이션사고, 디자인사고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타이틀은 병행 직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병행 직업이 많아진 배경으로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함으로써 받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실제로 병행 직업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단체, 개인의 실제 예를 들면서 '병행 직업의 구체적인 종류, 방법', '병행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노베이션 사고, 디자인사고, 장기로 활약 할 수 있는 커리어, 리더십, 포용력)', '병행 직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병행 직업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명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일 되는 한 권이 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타이틀이지만, 특히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 무언가 한 가지를 더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리더십 등 현재에 직업에서는 얻지 못할 것 같은 능력을 얻고 싶은 사람,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타이틀이다.

#### <목차소개>

제 1장: 시간과 장소를 고르지 않는 병행 커리어- 여러 가지 커리어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병행 커리어와 싱글 커리어 /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만들자 / 기업도 주목하는 인재육성 효과 / 본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연수성과 등)

제 2장: 본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사고는 '2번째 명함'이 만든다  
(회사 외에서 얻은 시점이 본업을 빛나게 한다 / 여러 가지 다른 업종의 멤버 팀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 / '긍정적인 실패'가 장려 된다 등)

제 3장: 자신의 커리어의 시간축은 자신이 정한다  
(60세를 넘어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람 / 커리어의 시간축은 자신이 결정한다 등)

제 4장: 권위가 통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리더십에 익숙해 진다.  
(권위가 없는 리더십- 리더십을 부하에게 발휘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여러 멤버의 참가 자세에 배려하는 리더십 등)

제 5장: 병행 커리어에서 포용력을 익히자  
(국경을 초월하는 것으로 시점이 넓어져 애매함을 용서하게 된다 / IT사원이 농업과 공동생활로 5감을 사용해 멘탈 헬스이 나쁜 것을 넘어 섰다 등)

제 6장: 커리어의 선택지가 늘어난 사람들  
(인사, 조직 컨설턴트에서 사회활동으로 지지축을 옮긴다 / 장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다 등)

제 7장: 자, 병행 커리어를 시작하자!  
(병행 커리어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 주 5시간에서 10시간 빈 시간에 어디서든 할 수 있다 / 새로운 한 발을 내딛자 등)

제 8장: 하나의 조직에서만 배운 것은 변화에 대응 할 수 없다  
(전직한 사람이 고생하는 조직문화의 벽 / 병행 커리어가 전직에 관한 리스크를 줄인다 / 조직에 활력을 불어줄 병행 커리어 등)

부록: 병행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원

#### <저자소개>

이시야마 노부타카

호세이 대학 대학원 정책 창조 연구과 교수이다. 히토츠바시 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산업능력 대학 대학원 경영 정보학 연구과를 수료, 호세이 대학 대학원 정책 창조 연구과 박사 후기과정을 수료하고 정책학 박사이다. NEC, GE 에 있어서 일관된 인사 노무 관계를 담당, 미국계 헬스케어 회사 집행 위원 인사 총무부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인적자원관리와 고용이 연구의 영역이다. ATD 글로벌 네트워크 재팬 이사 겸 토탈트 매니지먼트 위원회 위원장이다.

No.20150722-007

제목: 세계의 엘리트에게 필요한 '증명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

저자: 요시자와 미츠오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6월 25일



### <내용소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생각하는 트레이닝'으로 스스로가 유익한 인재인 것을 증명하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실용서**

'증명' 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을 떠올린다. 한 문제에 대해 수식을 몇 가지 대입해 보고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마무리를 짓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조사 도중에 용의자가 된 사람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고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 라는 것에 도달한 경위 등도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증명에는 꼭 수식이 필요 한 것은 아닌 것이다.

현대사회는 한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 보다는 논의를 거듭하고 시스템에 내포하는 원인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정당당하게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전개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이다. 또 글로벌화한 시대 라는 말도 많이 하는 것처럼, 국경을 넘어 지구규모의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 원인과 대처방법을 발견해 해결을 하는 것, 수학이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사용 하는 것, 자신의 사고방식에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설명이 정확히 되어 하는 것, 다른 의견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을 갖는 것 이 네 가지의 교양이 요구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력",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를 분석 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수적 추리력", 가정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프로세스를 서술하는 "논술력"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융합된 것을 '증명력'이라고 정의하고, 이 증명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먼저 세계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문제해결 트레이닝을 소개하고, 수학 연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법을 해설하고 그 발상을 수학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풀어내고 있다. 또 현대 비즈니스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이나 수학적 추리력을 높이는 열 가지의 힌트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소개하는 힌트를 실제 사용하면 많은 과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오해 없이 평이한 논리적 문장을 쓰기 위한 힌트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접속사의 활용법이나 단어를 선택하는 법, 3단이론 등 논리적



인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가 '나는 왜 문제의 원인을 모를까', '왜 의도한 설명을 전달하지 못하는가', '왜 틀린 숫자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요소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소개>

Chapter 1: 세계의 엘리트가 받고 있는 문제해결 트레이닝

(세계가 요구하는 '증명하는 힘'은 무엇인가 /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증명하는 힘의 관련성 / 문제 해결을 위한 스킬 업 /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유지하는 수적추리 / 왜 일본에서는 '증명하는 힘'을 경시하는 가 등)

Chapter 2: 알기 쉬운 설명이란 무엇인가? '예'를 드는 것이 증명력의 요소

('예'에는 4종류가 있다 / 집합요소형 에서는 집합의 전체의 모습을 이미지 한다 / 존재, 반례형 에서는 유도의 '한판'의 마음을 가져라 / 주제 변형형 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승부가 된다 등)

Chapter 3: 문제 해결력, 수적추리력을 높이는 10가지 힌트

(정수로 성립되는 성질은 '3'에 주목한다 / 주어진 정의와 조건을 풀로 활용한다 / 증명문에서 그림과 기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밀어서 안 된다면 당겨보아라'의 반대 / 먼저 일반화로, 다음에 특수화해서 생각해라 /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꿔 생각해라 등)

Chapter 4: 누구나 쉽게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 논리적 문장을 적는 방법

(논리적 문장이란 원인에서 결과를 유도하는 것 / 단어의 정의는 명확하게 할 것 / 단위의 경시, 생략은 트러블의 원인 / 잘못 사용되는 일이 많은 비율과 확률 / '전후, 좌우' 와 '각각, 씩'을 사용하는 법 / '또한, 한편'과 '필요, 충분'의 주의 점 등)

#### <저자소개>

요시자와 미츠오

1953 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이과 대학 이학부 교수(이학 연구과 교수), 오비린대학 교양과목 교수를 거쳐 현재 오비린대학 학장 특별 보좌 겸 이학박사이다. 국가 공무원 채용 1 종 시험 전문 위원(판단, 수적추리분야), 일본 수학회 평의원, 일본 수학 교육 학회이사, 일본 학술회의 제 4 부 수학 연구원 연락위원회 위원, '교과서의 대선, 충실에 관한 연구' 전문가회 평의원(문부 과학성 위촉) 등을 역임했다. 전공은 수학, 수학교육이다.

No.20150722-008

제목: 잊고 싶은 것을 잊는 연습

저자: 우에니시 아키라

페이지수: 216

장르: 심리학

출간일: 2015년 06월 06일



### <내용소개>

#### 잊고 싶은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기 위한 연습을 도와주는 심리서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규범, 가치관, 환경에 맞는 적응 행동 등 정말 작은 일에서 중요한 것까지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학습을 통해서 몸에 배는 습관적 기억들은 우리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뇌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취사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 사는데 중요하지만, 잊는 것 역시 중요해 진다. 잊지 않고 계속 쌓아 두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기쁘거나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좋지만, 반대로 슬프거나 아픈 것들은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삶은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사람들은 기억력을 좋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실은 기억하는 것 보다는 잊는 것이 더 어렵다. 실제로 과거에 아팠던 일이나 슬펐던 일을 잊지 못해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에는 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보다는 기억력을 높이는 책이 더 많다. 그 가운데 저자는 잘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이 책에 풀어내고 있다. 우선은 잊어야 하는 것과 잊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각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잊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여러 방법을 제시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은 항상 후회를 하며 그 후회를 계속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때로는 포기를 하는 것도 잊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쁜 기분을 지우는 것은 물론, 잊는다는 행위는 뜻밖의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루 하루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멋진 내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일들을 잊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 동안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의식이 과거를 향해 있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밝은 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항상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혹은 한가지라도 내가 잊고 싶은 일들을 잊을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한다면, 과거의 나쁜 일은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잊으면 안 되는 일, 잊어도 되는 일

(좋은 추억을 남기고, 나쁜 추억은 잊자 /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잊어도 좋다 등)

제 2장: 자기만의 '잊는 방법'을 만들어 둔다

(나쁜 것을 잊을 수 있는 자신만의 '망우의 물건'을 가져보자 / 변명을 잘 하면 분한 마음을 잊을 수 있다 /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이 아니라 '일치하는 점'을 발견한다 등)

제 3장: 집착을 하니까 잊을 수 없게 된다

(과거를 그리워해도 현재의 생활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 완벽주의적 인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작은 일을 잊을 수 없게 된다 등)

제 4장: 포기를 잘 하면 잘 잊을 수 있다.

(얻은 것을 소중히 하고 잃은 것은 포기하고 잊자 / 소망을 가져도 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 가능한 한 욕심을 적게 하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자 등)

제 5장: 금방 잊으면 좋은 것이 끌려 온다

('잊는' 것은 호감도를 올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 미래의 즐거운 꿈으로 과거의 후회를 지운다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꿈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라 등)

제 6장: 용서하는 것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라

(내가 해 준 것은 잊어도, 나에게 해 준 은혜는 잊지 않는다 / 오늘이라는 날,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기고 화를 잊어라 등)

제 7장: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일을 잊어라

(나쁜 것을 잊으니깐 항상 행복할 수 있다 / 비가 오는 날엔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을 즐기자 / 사람에게는 그 연령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알아두자 등)

제 8장: 받아 들임으로써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분한 마음을 잊을 수 있다 / '자력'과 '타력'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살아 간다 / 잊는다는 것은 슬픔으로부터 자기자신을 해방시켜 주는 것 등)

제 9장: 어떤 일에 열중하여 괴로운 기분을 날려버리자

(일에 대한 정열이 일의 힘듦을 잊게 해 준다 / '싫어, 도망치고 싶어'라는 기분을 없애면 마음이 편해진다 /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는 시간이 나쁜 기분을 잊게 해준다 등)

**<저자소개>**

우에니시 아키라

심리 카운셀러 겸 저술가 이다. 도쿄에서 태어나 가쿠슈인 고등학교, 가쿠슈인 대학 졸업 후, 시세이도에서 근무를 했다. 독립 후 '심리학', '동양사상', '신사상 철학'등에 기초한 인생론 연구에 종사했다. 1986 년 체계화 한 '성심학' 이론을 확립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저술을 개시했다. 1995 년 '산업 카운셀러'를 취득했다.

No.2015072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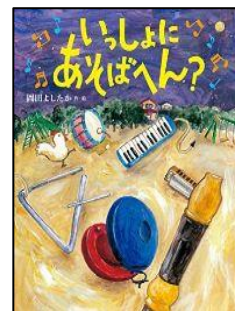
제목: 같이 놀래?

저자: 오카다 요시타카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10월 28일



###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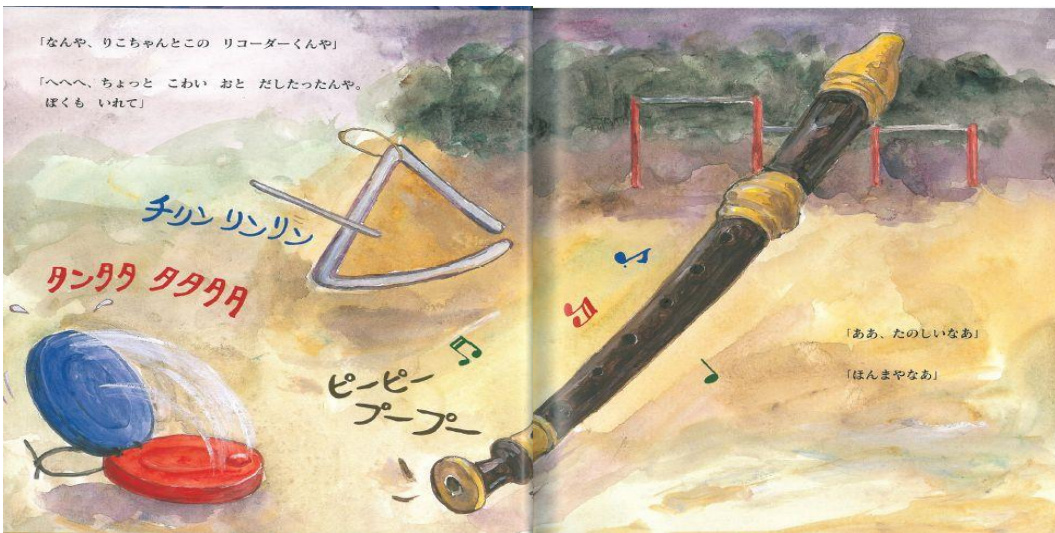
#### 여러 악기의 소리와 함께 즐기는 한밤의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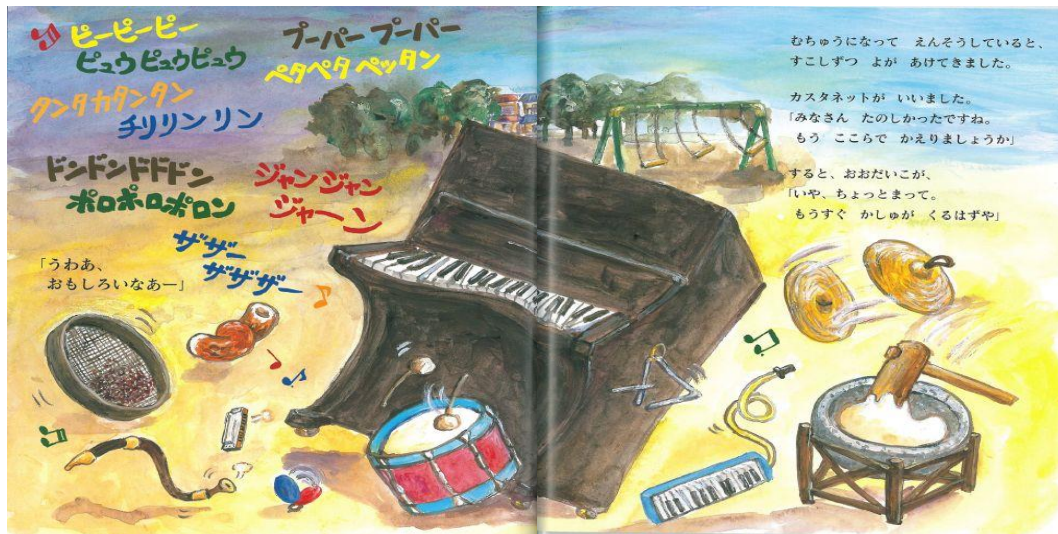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캐스터네츠는 집에서 몰래 빠져 나와 공원으로 향합니다. 혼자서 소리를 내던 캐스터네츠는 혼자서 심심해 토라코네 트라이앵글을 불러냅니다. 함께 놀고 있으니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리코더였습니다. 리코더와 셋이 놀고 있으니 큰 북과 하모니카, 멜로디언까지 공원에 모이게 됩니다. 점점 공원에는 많은 악기들이 모이게 되고 제각각 자신의 소리를 내며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또 무엇인가가 다가옵니다. 그 것은 어묵과 팔들, 절구통이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에 열중을 하다 보니 아침이 오고 말았습니다. 캐스터네츠는 이제 각자의 집에 가자고 하자, 이제 가수가 온다고 합니다. 그 가수들은 까마귀, 닭, 매미였습니다. 다 함께 연주를 하고 있자, 없어진 악기를 찾으러 악기의 주인들이 공원으로 왔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도 공원으로 와 이번엔 아이들에 의한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던 악기들은 한밤 중의 연주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이들이 소리를 내 주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청각적 자극은 음악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교재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음감이라는 것은 음정을 지각하는 능력으로, 이 것은 유아기에 발달하는 음악적 요소 중 하나로 다양한 음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발달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악과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경험은 아이에게 리듬, 셈 여림, 빠르기, 멜로디 등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억지로 음악학원에 보내는 것 보다는 아이가 흥미를 가질 때 악기를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꼭 악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리가 나는 물건 등, 다양한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며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무리하게 시키는 것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소리를 내서 읽어 주고, 실제의 악기 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아이는 음악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 >





#### <저자소개>

오카다 요시타카

화가이며 그림책 작가이다. 1956 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음식 등을 주역으로 한 유머가 넘치는 스토리와 그림이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폭 넓게 지지 받고 있다. '어묵 와아저씨'로 제 3 회 리브로 그림책 대상을 수상했다.



No.20150722-010

제목: 비의 커튼을 열면

저자: 오카네 요시키

페이지수: 27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8년 11월



### <내용소개>

#### 비가 오는 날, 비의 커튼을 열고 바다 속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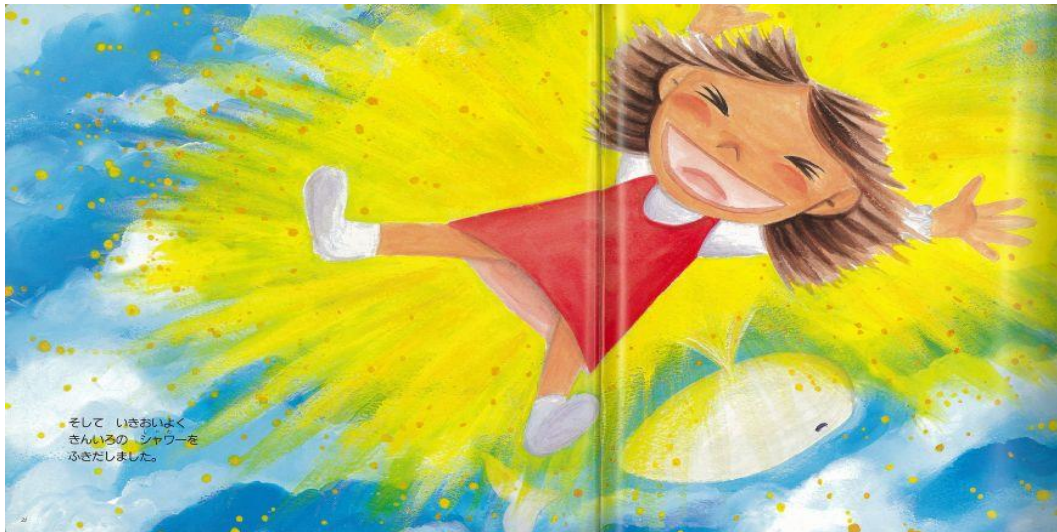
폭풍우가 치듯이 비가 내리는 날, 마도코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마도코는 정원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밖에서 누군가가 마도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밖의 비 커튼을 열었더니 그 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강과 바다가 하늘과 이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물 속 친구들은 마도코에게 함께 놀자고 권합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꼬리를 잡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몸이 불편해 공원에서 뛰놀지 못했던 마도코는 수영으로 물고기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래 아저씨가 나타나 마도코를 등에 태우고 빌딩과 산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빌딩 숲을 지나 고래아저씨는 하늘 위까지 날아갑니다. 구름 위에 올라간 고래아저씨는 배가 고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삼켜버리고, 등에 있는 구멍으로 그 빛들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고래아저씨가 뿜어준 따스한 빛 샤워에 마도코는 고래 등 위에서 기분 좋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많이 달라져, 장마기간에만 집중 되던 비가 여름철 전 기간으로 확산 되면서 비 오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며칠씩 날이 개지 않거나 하면 아이들은 집에만 있기 따분해 지기 마련입니다. 비가 오는 날 따분해 지는 마음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마도코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과 바다가 하늘과 맞닿았다는 배경으로 아이들의 상상력도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고정관념을 깨서 비가 오는 날을 재미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마도코처럼 실제로 여행을 떠나진 못하지만, 만나고 싶은 물고기 친구들을 함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책엔 여러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어서 비가 와 어두운 날에도 밝은 그림책의 색을 보면서 마음도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 본문이미지 >







<저자소개>

오카네 요시키

1964 년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18 세에 영화감독을 지망하고 도쿄로 왔다. 그 후, 극단을 창단, 극본, 연출을 했다. 친구와 시작한 '만물상'과 그 이외의 일을 계속 하다가 그림책 한 권을 만나 충격을 받는다. 그림책 워크샵 등에 참가하면서 창작을 목표로 "한밤중의 산책"으로 처음 그림책을 출판한다.